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2021 | 12 | 제154호



천주교마산교구 사목국

소공동체 모임 순서

- ▶ 소공동체 봉사자는 모임 순서를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
- ▶ 소공동체모임 시작 전, 매월 2째주 혹은 3째주 주일의 복음 나누기 중에서 미리 선택한다.

1. 시작성가

- ▶ 소공동체에서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시작성가를 안내한다.

[진행] · 성호경/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성가()번, ()절을 노래하겠습니다.

2.인사 나누기

- ▶ 전입자나 처음 나오신 분 또는 특별참석자가 있는 경우에 소개한다.

[진행] · 각자 소개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3. 전 모임 기록 낭독

[진행] · 지난번 반회의록을 낭독해 주십시오.

4. 길잡이에 의한 복음 나누기

- ▶ 소공동체가 선택한 주일의 '길잡이에 의한 복음나누기'에 따라 진행한다.

[진행] · 길잡이에서 ()주일의 복음나누기 부분을 펴 주십시오. (모두펴면)

[1] 주님초대하기

[2] 하느님 말씀

1) 복음말씀을 읽는다.

2) 침묵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

3) 마음 안에 들려 온 말씀을 나눈다.

[3] 한 걸음 더 나아가기

[4] 생명의 말씀 정하기

[5] 말씀살기

1) 지난달 실천사항 나눔

2) 이번 달 실천사항 논의

[6] 마침기도

소공동체 모임 순서

5. 궁금했어요 「소공동체 다시 배우기」

- [진행] · '궁금했어요' 부분을 펴 주십시오.(모두 펴면)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6.기타토의 및 공지사항

- [진행] · 우리 소공동체에서 본당에 건의하거나 기타토의 할 사항을 나누겠습니다.
[진행] · 본당 공지사항과 구역 · 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 차기 모임장소와 날짜 정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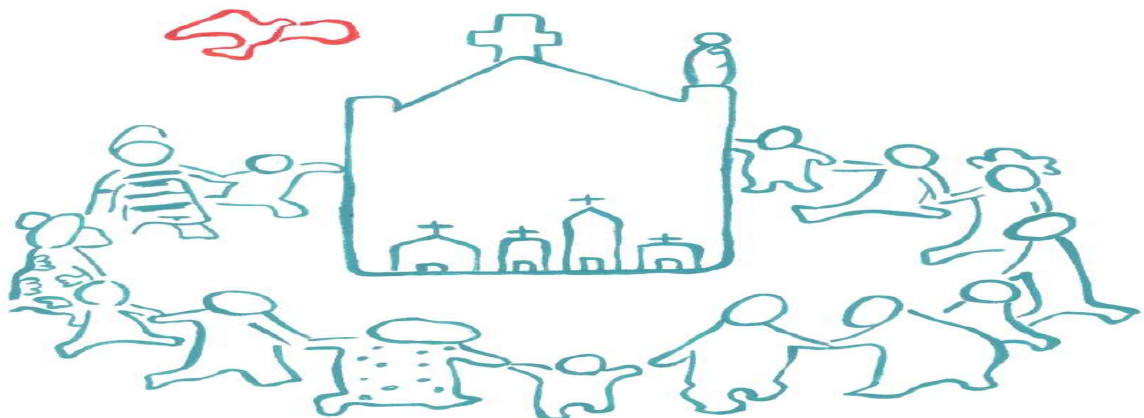
- ▶ 다음 모임의 장소를 제공할 세대와 날짜를 정하고 기록한다.
[진행] · 차기 모임 장소와 날짜를 정하겠습니다.

8. 소공동체를 위한 기도

- [진행] · 본당 소공동체를 위하여 다함께 '소공동체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9. 마침성가

- ▶ 반장은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마침성가를 안내한다.
[진행] ·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성가()번 ()절을 노래하겠습니다. / 성호경





복음 나누기

대림 제3주일 (12월 12일)
저희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루카 3,10-18)



성령과 불의 세례

그림 정미연 소화데레사 | 화가

세례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다음에 오실 분은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으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심을 표현했습니다. 우리들은 자신을 겸허하게 고백한 요한의 겸손을 깊이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이 깃들 때 비로소 드러나는 자선의 행위를 이제 행할 때입니다.



복음 나누기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93번 "임하소서 임마누엘"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이끌어 주소서.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루카 복음 3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그때에 군중이 요한에게 10 물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11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12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스승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자, 13 요한은 그들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마라.” 하고 일렀다. 14 군사들도 그에게 “저희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요한은 그들에게 “아무도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여라.” 하고 일렀다. 15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16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17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치우시어, 알곡은 당신의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 버리실 것이다.” 18 요한은 그 밖에도 여러 가지로 권고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스승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루카 3,12)

나는 신앙인으로서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한은 그 밖에도 여러 가지로 권고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루카 3,18)

하느님의 말씀에 맞들인 순간이나 성경말씀 중 기억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복음 나누기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 제3주일입니다. 교회는 이날을 장미주일로 지내며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자고 권고 합니다. 오늘 복음은 세례자 요한의 삶을 전해주면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참된 기쁨의 원천이 무엇인지 묵상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소공동체 여러분! ‘참된 기쁨의 원천’은 어디에 있을까요? 세례자 요한은 복음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그 해답을 알려 줍니다.

그는 광야에서 금욕생활을 하며 하느님 뜻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해야 하는 자신의 소명에 대해 분명히 아셨고, 때가 되어 하느님께서 자신을 도구로 부르셨을 때 단순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릴 자격조차 없다”(루카3,16)

그리고 기쁨에 가득 차 열정적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기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겸손한 모습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때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음을 삶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 우리 모두가 많이 힘들고, 지쳐있는 시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주님께 희망을 두고, 매 순간 주님의 뜻을 묵상하며 단순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그래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눔과 기쁨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항상 기도 드립니다.





복음 나누기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진행자] 지난 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93번 "임하소서 임마누엘"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복음 나누기

대림 제4주일 (12월 19일)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루카 1,39-45)



두 여인의 만남

그림 정미연 소화데레사 | 화가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방문하여 인사를 나눕니다. 태중의 아기가 기뻐 뛰놀고 두 여인의 찬미가 따뜻한 색감으로 피어납니다. 불가능한 일들 앞에서 하느님께 온전히 순종한 두 분의 만남은 우리에게 구원의 때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복음 나누기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93번 "임하소서 임마누엘" 3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살려주소서.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루카 복음 1장 39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39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40 그리고 즈카르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41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42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43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44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45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루카 1,42)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루카 1,45)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무엇입니까?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복음 나누기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은 온통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잉태한 기쁨을 나누기 위해 엘리사벳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기쁨은 엘리사벳뿐만이 아니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 즉 세례자 요한에게까지 이릅니다. 이 기쁨과 희망은 주님을 희망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태중에 있는 아기에게까지 이르는 기쁨입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본다면, 주님의 잉태와 출산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기쁜 일만은 아닙니다. 주님의 잉태로 말미암아 마리아는 위험한 상황속에 놓이게 되고, 엘리사벳의 태안에서 기뻐 뛰노는 아기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언자적 소명을 실천하다가 목숨을 잃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 안에 나타나는 마리아와 엘리사벳, 그리고 그 태중의 아기 세례자 요한에게 주어진 기쁨은 다른 모든 불행이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상쇄시키고도 남을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다른 물질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기쁨이 아니라, 단순히 주님의 오심에 대한 기쁨입니다. 하느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참된 기쁨입니다.

올해도 하느님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십니다. 우리는 매년 그러한 성탄을 준비하고 기념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의 오심이 우리들에게 참된 기쁨으로 다가 오십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마리아의 기쁨은 그 누구의 기쁨보다 크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다는 참된 기쁨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성탄을 주님께 대한 참된 기쁨으로 가득찰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진행자] 지난 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93번 "임하소서 임마누엘"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함께하는 소공동체

위드코로나 속에서의 희망 복신동 본당 구역분과장 김수옥(데레사)

복신동본당은 1995년 2월 태평동본당에서 분리되어 올해로 설립 26주년을 맞이하였으며, 6구역 22개반 11개 소공동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공동체 전체가 모이는 미사가 어려워지자 신부님께서는 1구역 1반부터 차례로 소공동체 반미사를 드렸습니다. 본당미사 때에는 개인별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지만 소규모로 미사를 드리니 해당 구역 형제자매는 소공동체 미사에 참여하여 소소하게 살아가는 이야기, 각 반에 필요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반미사를 통해 더 가까이 마주하여 소통하고, 얼굴을 익히며 신앙 체험을 나누니 서로가 주님 안에서 더욱 하나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되돌아보면 그동안 주님 안에서 소공동체 모임을 해왔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가슴 뜨거워지는 소공동체모임을 다시 할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마음 한 켠을 건드립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19라는 위험한 바이러스가 우리 일상에 침입하였지만,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랑을 실천하며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신뢰하고 의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힘겨운 시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에 더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려움, 물질, 욕망으로 쉽게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하며 삶 안에서 실천할 때 주님께서 말씀의 열매 풍요로운 삶 자유와 기쁨,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공동체 안에서 반원들과 주님 안에서 일치하고 따뜻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소공동체 다시 배우기

▶ 소공동체 모임에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나요?

함께 모여 하느님의 말씀을 나누는 ‘나눔의 영성’과 그 신앙이 사랑의 나눔으로 드러나는 ‘봉사의 영성’이 소공동체 모임을 이끌어 나가는 커다란 두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소공동체에서 어떠한 활동들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지요? 개인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활동과 공동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아래의 활동들을 참고해서 실천해 보시면 더 활기 있는 소공동체 모임을 운영해 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 개인 차원

성체조배, 매일 묵주의 기도 바치기, 구역 신자 이름(세례명) 외우기

미사 시작 20분 전에 와서 묵상하기, 특정한 이웃을 위해 매일 주모경 바치기 등

● 공동체 차원

㉠ 선교활동

㉠ 이웃에게 신앙 권면

㉡ 예비신자 돌보기

(교리시간 동행, 대부모 서기, 교리 시간 중 예비신자 자녀 돌봄, 세례식 때 참석하여 축하하기)

㉢ 유아세례 권면 및 대부모 서주기

㉣ 예비신자 가정 방문

㉤ 냉담자 파악 및 방문

㉥ 전입 신자 방문

㉦ 가두선교 참여하기

㉧ 전례활동

㉧ 주일 전례 때에 독서 및 신자들의 기도, 성가 봉사

㉡ 전례시기에 따라 신앙에 도움을 주는 장식물 만들기

(대림초, 성탄트리, 부활계란, 가시나무 십자가...)

㉢ 반 별 십자가의 길, 피정, 성지순례

㉣ 성가 배우기

㉤ 공동으로 성경 읽기

㉥ 원하는 가정에 돌아가면서 기도해 주기

㉦ 봉성체가 있을 경우 함께 참여하기

다음 페이지에 계속



소공동체 다시 배우기

▶ 소공동체 모임에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나요?

㉠ 봉사활동

- ㉠ 구역 내 환자 방문 및 도움이 필요할 경우 도와주기
- ㉡ 병원에 입원한 신자 및 예비신자 방문
- ㉢ 구역 내 독거노인 및 새싹가정을 방문하여 노력 봉사하기
- ㉣ 연도 및 상가(喪家) 돕기
- ㉤ 혼인 및 회갑 및 기타 노력 봉사가 필요한 가정에 가서 봉사하기
- ㉥ 장애인 가정 돕기 및 장애인들과 함께 하는 활동에 봉사자로 참여하기
- ㉦ 본당 청소에 참여하기
- ㉧ 재소자 방문하기
- ㉨ 외국인 노동자에게 관심 갖기
- ㉩ 복지 시설, 단체를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봉사자 활동하기

㉡ 친교활동

- ㉠ 반 모임 시 친교를 위한 놀이(웃놀이, 간단한 다과회)
- ㉡ 선교 가능한 이웃을 초대하여 함께 차 마시기
- ㉢ 신앙과 관련되는 음악회, 미술전시회, 박물관, 기타 기관 함께 방문하기
- ㉣ 본당의 친교 행사에 참여하기
(성가경연대회, 성극 대회, 부활그림 그리기 대회, 본당 체육대회)

㉢ 교육활동

- ㉠ 주일학교 교육 협조하기
- ㉡ 성경공부하기
- ㉢ 신자 재교육에 적극 참여하기
- ㉣ 예비신자 교리공부 도와주기

㉣ 대사회적 활동

- ㉠ 동네 골목 청소하기
- ㉡ 환경보호에 앞장서기
(물 아껴 쓰기, 일회용품 사용 자제하기, 쓰레기 분리 철저하게 하기, 재활용품 사용하기)
- ㉢ 사회 도덕성 회복을 위한 운동에 참여하기
(공공장소 깨끗이 사용하기, 공공 물건 아껴 쓰기)
- ㉣ 올바른 문화 정착하기
(사치품 안 쓰기, 과도한 혼수품 안 하기, 폭력, 선정 영상물 모니터링 하여 항의하기, 지역 내 교육환경에 대하여 관심 갖기)
- ㉤ 생명을 살리는 모든 운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서명운동에 참여하기
- ㉥ 농촌지역 신자들과 연결하여 무공해 농산물 구매하기

<다음 호에 계속...>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시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 마음 한뜻이 되어
항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